



10·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
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

보도참고자료

2026. 3.13.(금)

피해자 권리보장
철저한 진상규명
재발방지 대책수립

담당자

대외협력과장 고영호(02-2650-1081), 담당자 이훈(02-2650-1085)

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제2일차 제7세션

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나?

※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이며, 구체적인 주제나 증언 내용은 청문회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세션 7 :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, 허위공문서 작성 규명**
이번 세션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시점, 본부장과 대책본부의 역할, 그리고 용산구청 보도자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와 검토·결재 과정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.
- 특별조사위원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, 즉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,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한다. 이어 참사 이후 예방·대비·대응·수습에 대한 자체 평가를 했는지, 했다면 그 내용과 적용 여부를 묻는다.
-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22시 51분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“구청장님. 사망.”, “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다”는 신고를 받은 뒤 누구에게 먼저 연락했는지, 용산소방서장에게 통보했는지, 행정안전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했는지, 용산구청 담당 부서장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했는지를 질의한다. 이어 22시 59분 참사 현장 도착 후 비서실 단톡방에 사진을 게시한 뒤 누구에게 연락했는지, 행안부 장관·서울시장 보고 및 담당 부서장 지휘 여부도 확인하였다.

- 특별조사위원회는 유승재 당시 용산구 부구청장에게 참사 당일 23시 12분경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전화를 받고 참사를 인지했는지, 00시 22분경 용산구청 도착 후 무엇을 했는지, 박희영 구청장으로부터 대응 및 수습 조치를 지휘받거나 지시받았는지,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를 질의한다.

- 아울러 박희영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에게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(당직실)이 재난안전법, 20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①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, 행안부 등에 보고하고 ② 용산소방서,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를 하며 ③ 필요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짚을 예정이다.

-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었던 박희영 구청장에게 참사 이후 용산구의 첫 보도자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계획의 '29일 23시 재난대책상황실 설치 및 비상대책회의', '30일 00시 20분부터 지대본 및 통합지원본부 가동'과 같은 허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묻는다. 위은진 위원은 이 사안에 관해 "핵심 시간대에 관해 사실관계 검증 없이 조직전체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, 확정된 구조는 은폐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"라고 발언한다. //끝//